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의 의미와 성과

이 강 우 /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관리총괄과장

공동시찰의 성사 배경 및 합의 경과

남북공동시찰단은 지난해 12.12~12.22(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청도경제기술개발구, 소주공업원구, 심천경제특구 및 베트남의 엔퐁공단을 시찰하였다.

이번 공동시찰은 지난해 우리 측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개성공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 남북이 나아가야 할 ‘공통의 이정표’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공단 시찰을 제의한데 대해 북측이 동의해 옴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북측의 동의 이후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방문 지역 및 일정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12월 초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관리위를 통해 북측 대표단의 명단을 전달해 옴에 따라 최종 합의되었다.

또한 우리 측은 내실 있는 공동시찰 준비를 위하여 시찰 지역을 미리 방문하여 공단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이동 경로, 숙소 등 시찰 일정을 사전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시찰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시찰에 임하였다.

남북 공동시찰은 과거 2005년과 2007년에도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번 시찰은 과거와 같은 단순 시찰이 아니라 남북 당국간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남북 각 10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의 대표는 개성공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의 수석대표가 맡았고, 개성공단 관계 실무자 외에도 남북의 회담 관계자도 포함하여 대표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시찰 일정 및 지역별 중점 시찰 내용

공동시찰은 청도경제기술개발구 시찰(12.14)을 시작으로 소주공업원구(12.15~16), 심천경제특구(12.17~18), 베트남 옌퐁공단(12.21)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 방문지마다 공단 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적인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고, 질의 응답을 가진 후 현지 입주기업(총 9개 : 우리기업 6곳, 외국기업 3곳) 시찰 順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시찰기간 중 3차례의 남북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동안의 시찰 결과를 토론하고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도경제기술개발구(淸島經濟技術開發區)

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현황 청취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한 후 입주기업 3곳을 시찰하였다. 우리측은 성공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 초기 단계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특혜 제공 내용, 투자 유치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에 중점을 두고 시찰을 진행하였다.

북한측은 임금 수준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기업 방문시는 구체적인 작업 공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종업원의 근무 여건(교대 근무, 종업원 해고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소주공업원구(蘇州工業園區)

관리위원회 방문에 이어 물류센터, One-Stop 서비스센터, 인력자원시장, 기숙사단지 및 입주기업 3곳을 시찰하였다.

우리 측은 중국-싱가폴간 협력에 기반한 소주공단의 성공 사례를 통해 개발 당사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One-Stop 서비스센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 인력자원시장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력 공급 체계 등에 중점을 두어 시찰을 진행하였다.

북측은 소주공업원구의 우수한 환경에 관심을 보이면서 환경 기준에 대해 문의하는 한편, 인력의 유치 방법, 회계 검증의 주체와 방법, 기업 파산시 처리 절차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기숙사단지 방문시는 기숙사의 임대료·관리비·사용료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였다.

심천경제특구(深川經濟特區)

염전항 컨테이너 터미널 및 보세물류원구, 홍콩-심천간 통행·통관 창구인 황강출입사무소 및 현지기업 2곳을 시찰하였다. 우리측은 전자출입체계(RFID)를 통한 인원의 24시간 자유 통행, 화물·자동차의 효율적 통관 절차 및 운영시스템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찰을 진행 하였다.

북한측도 통행·통관 절차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청취하는 등 우호적 태도를 시현하였으며, 심천의 전자상가를 방문하여 각종 전자제품을 유심히 관찰하는 한편, 심천의 발달된 도로망·지하철을 관찰하는 등 새로운 문물을 섭취하려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지기업 방문시는 임금 수준, 식사 문제, 숙소 문제 등 복리 후생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하였다.

베트남 옌풍공단(Yen Phong Industrial Park)

관리위 방문 후 입주기업인 삼성전자를 시찰하였다. 개발 초기 단계인 옌풍공단에서는 저렴한 근로자 임금, 각종 인프라 구비, 우수기업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

하는 등 적극적 투자 유치 노력과 우대 정책을 부각하면서 옌푹공단과 개성공단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북측은 공단내 전력·하수 등 인프라 시설 개발 방식, 기업들의 입주 심사 절차, 우량기업 판단 기준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공동시찰의 의의 및 성과

금번 공동시찰은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의와 성과를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째, 공동시찰은 남북 당국자 사이에 새로운 방식의 소통 채널을 제공하였다. 공동시찰을 통해 남북 당국자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10박 11일간 같이 동행하면서 장시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으며, 특히 3차례의 워크숍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공동시찰을 통하여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대한 남북의 공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측도 “다른 공단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개성공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이보다 더 잘 만들어야한다”고 하는 등 개성공단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마련한 일정에 협조적으로 임하였고, 일부 방문 대상 기업을 직접 섭외하는 등 시찰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특히 공휴일에도 워크숍 개최, 도시의 발달한 인프라 시설 및 전자상가 시찰을 진행하는 등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

셋째, 공동시찰을 통해 남북간 당사자가 아닌 중국과 베트남의 제3국 관계자들로부터 성공적인 공단의 공단 개발·운영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북측에 전달할 수 있었다. 이들이 전하는 공통된 메시지는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유치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자유롭고 신속한 통행·통관·통신은 경쟁력의 기본적 요소라는 점, 세계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

적인 규범에 따라 공단을 운영하며, 완벽한 인프라 및 기업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는 것을 북측도 확인하였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두 번의 시찰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동시찰은 남북이 개성공단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안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개발 15년만에 세계적 공단으로 성장한 소주, 30년 전 조그만 어촌에서 상전벽해를 이룬 심천, 비록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모습을 보며 북측 대표단은 무엇을 느꼈을까? 아마 우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도 ‘발전의 욕구’를 느꼈을 것이며 그 발전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이룩된다는 점을 느꼈을 것이다.

향후 과제

앞으로 공동시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남북이 서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매겨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공동시찰이 개성공단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하에 문제를 실무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소통 채널로 정착되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제2, 제3의 공동시찰이 진행되고 정례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제도, 세무·회계, 보험 등 분야별 공동시찰도 활성화 되어야 하겠다. 統